

에너지사업의 다각화현장을 가다

金 乾 洽

(대한석유협회 홍보실장)

油公이 변모하고 있다. 지난 62년 10월 13일 우리나라 최초의 정유회사로 설립되어 에너지의 안정공급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지대한 기여를 했던 油公은 최근 석유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종래의 단순정제업에서 과감하게 탈피,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다. 綜合에너지사업으로의 기업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油公의 움직임을 보면 한달이 멀다하고 새 회사를 창립하거나 신규플랜트를 착공하고 있다. 최근의 예만 보더라도 지난 8월 25일에 淸州도시가스를, 9월 17일에는 油公아코화학을 각각 창립했다. 또 지난 9월 15일에는 蔚山LPG기지 지하저장장洞을 완공했고, 10월 30일에는 신규에틸렌 및 폴리올레핀제조시설 기공식을 가졌다.

油公은 오는 2000년대에 綜合에너지·綜合화학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장기적인 목표하에 석유사업 상류·하류부문의 계열화와 석탄·가스사업 참여를 통한 에너지사업의 다각화, 석유화학사업의 확대등 전략적 투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석유사업의 상류부문 진출을 통한 수직적 계열화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82년부터 추진해온 해외유전개발사업은 오는 95년까지 油公 소소원유의 20%를 자체개발 원유로 충당한다는 목표 아래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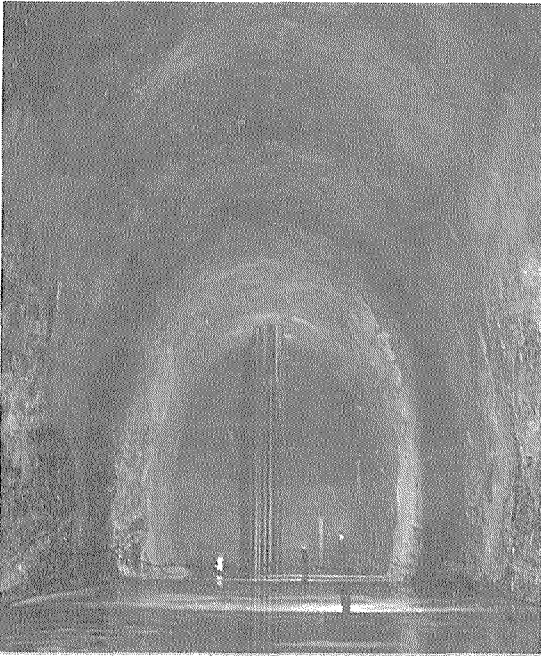
油公의 해외유전개발현황을 보면, 지난 84년 美國의 헌트오일社의 北예멘 마리브광구 탐사사업에 油開公등 국내 3개社와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24.5%의 지분으로 참여하였으며, 이 지역에서 발견된 알리프油田은 지난 85년에 이미 상업적 유전으로 선언되었다. 또한 수단,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브라질에서도 석유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업지역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국내에너지기업으로서는 年産 4만톤 규모의 석탄, 물 혼합연료(CWF)생산설비를 건설하여 지난 7월부터 석유를 대체한 산업용 연료로서 공급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자회사인 油公가스를 통한 LPG수입기지사업과 淸州도시가스사업이 추가적인 에너지源 다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같이 요즘 油公의 사업확장은 가히 「高速」으로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다.

그동안 油公이 벌여온 각종 다각화사업은 이제 하나



둘 그 결실을 보고 있다. 정부의 LPG수입사업 산업합리화계획에 따라 지난 85년 12월에 설립된 油公가스가 현재 蔚山市 남구 용잠동 峰大山 지하에 건설중인 LPG기지는 약 2년간의 건설공사를 끝내고, 이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油公가스는 이 LPG기지의 핵심부분인 지하空洞(Cavern)을 지난 9월 15일에 완공하여 徐孝重사장(油公종합기획실장겸 석유사업기획담당부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유관기관장 및 관련업체 인사등 많은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완공기념행사를 가진 바 있으며, 12월 현재 시운전중에 있다.

지난 12월 초 필자가 이 LPG기지를 방문했을 때 지하저장空洞은 이미 공사가 끝나 터널입구에서 가스누출방지를 위해 용수주입을 하고 있었고, 주위에서는 기기설치, 배관등 지상설치공사와 출하부두공사가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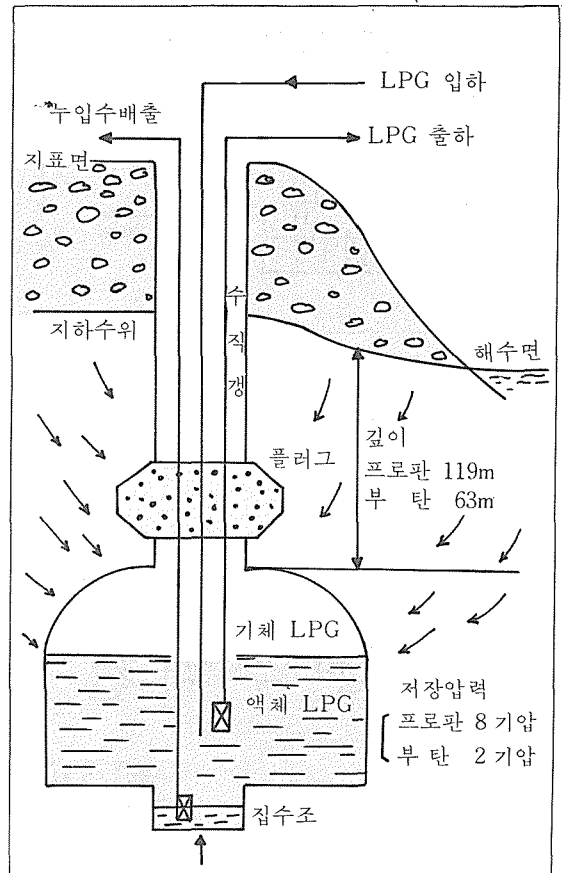
이 LPG기지는 지상이 아닌 지하空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이라고는 산허리를 가로질러 뻗어 있는 몇줄기의 파이프라인과 육상출하시설, 그리고 본관건물이 고착이다. 그러니까 주변의 자연경관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채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지하저장空洞은 높이 21미터, 폭 17~19미터의 여러개의 긴 수평터널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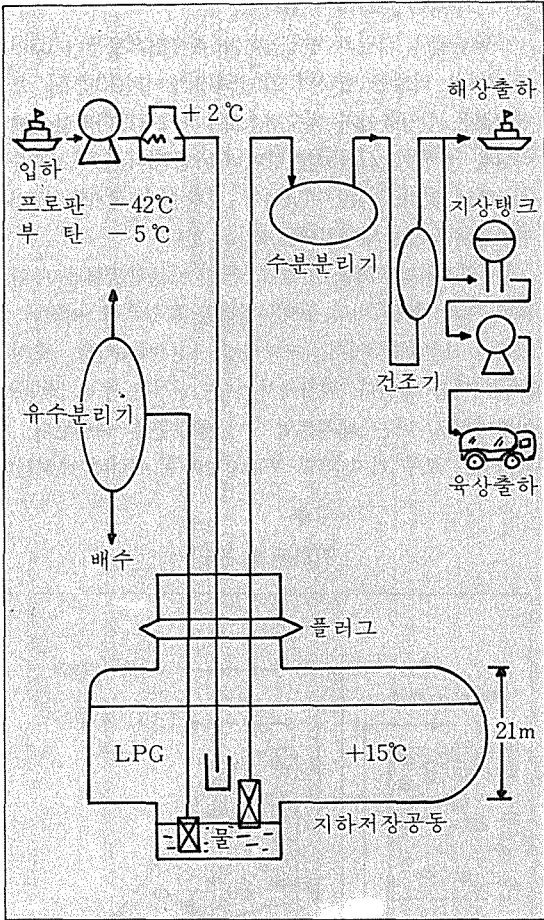
부탄空洞은 터널의 천정높이가 해수면으로부터 63미터인 3개의 터널을 합하여 22만5천입방미터(13만톤), 프로판空洞은 천정높이가 해수면으로부터 1백19미터인 4개의 터널을 합하여 27만5천입방미터(14만톤)의 LPG저장능력을 갖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암반중에 굴착된 LPG용 저장空洞으로는 세계최대규모라고 한다.

이 지하저장空洞을 만들기 위해, 프로판空洞과 부탄空洞에 각각 8백57미터, 6백34미터를 뚫었으며, 이밖에 진입터널 1천3백23미터, 수막터널 1천1백30미터, 수직갱 2백7미터를 뚫었다. 여기에서 나온 암석은 무려 59만8천 입방미터로 이는 대형트럭 7만5천대분에 해당된다. 이 암석들은 모두 기지 앞의 출하시설부두 매립에 쓰여졌다.

지하저장 원리



공 정 도



이 지하저장공동은 프랑스의 Geostock社와 국내의 삼립컨설턴트社의 설계감리로 지난 85년 12월에 착공되어 약 2년만에 완공되었으며, 여기에 투입된 자금은 약 700억원에 이르고 있다.

李克煥 관리과장은 『LPG기지의 이러한 대규모 지하저장공동은 같은 크기의 지상 냉동저장탱크에 비하여 건설비가 훨씬 저렴하고, 운전·보수비가 적을 뿐더러 토지의 소요면적이 적고, 주위경관을 해치지 않으며, 안전면·보안면에서도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지는 요즘 내년초의 본격가동을 앞두고 시운전하느라고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다. 현재 이 기지에는 51명의 기간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 체제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운전하느라 「발이 열개 있어도 모자란다」고 주과장은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표정은 보람과 긍지가 넘쳐 흐른다.

이 LPG기지가 금년안에 기기설치, 배관등 지상시설공사와 출하부두공사를 마무리하여 내년초부터 본격적인 수입, 저장, 판매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의 LPG수급사정은 한결 더 원활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사용에 편리하고 열효율이 높으며, 또 깨끗한 LPG는 최근 가정·산업용과 자동차용 및 산업용 연료로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내수요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다 앞으로 석유화학용 원료로서도 큰 몫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蔚山 LPG기지가 준공되면 국내 LPG의 안정적, 경제적 공급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지를 보고 나서 필자는 앞으로 5년후의 油公의 모습이 어떻게 변모될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아마 엄청나게 변모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油公이 벌이고 있는 각종 사업다각화활동을 볼 때, 이 프로젝트들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油公은 제2의 도약을 위해 숨가쁜 변신을 계속하고 있다. ☐

분수지킨 연말연시

희망에 찬 새해살림